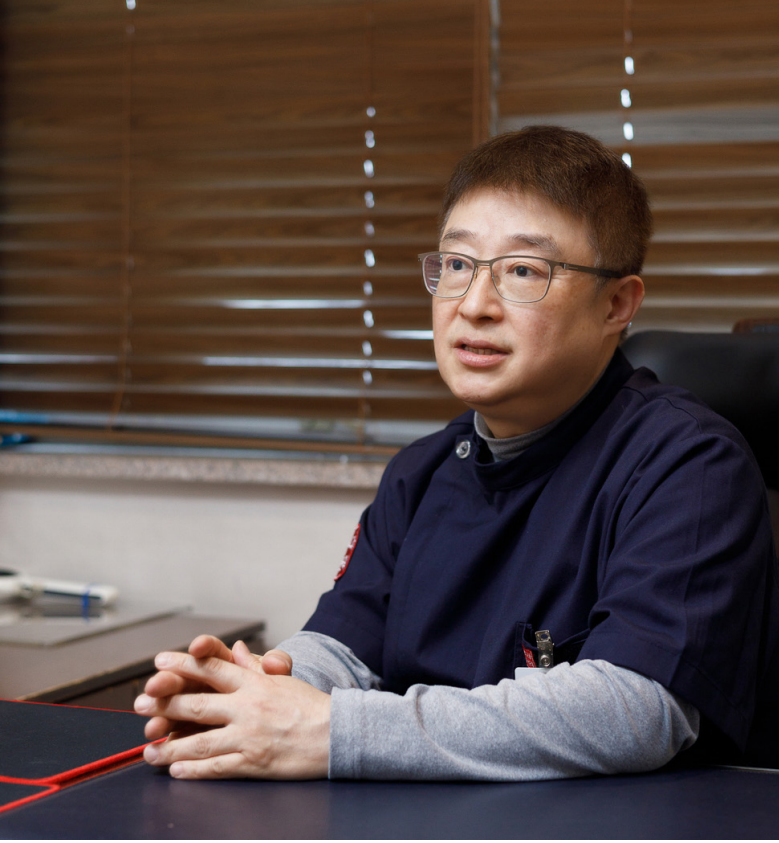


언제나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을 나의 피부 지킴이

- 20년 분당정자 피부주치의 하석준 대표 원장 -



산책을 하다 보면 눈인사를 건네는 이웃, 탄천의 사계절을 스무 번 넘게 경험한 동네 사람. 하석준 대표 원장이 지난 분당정자 차앤박피부과의 20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다 보니 마주하는 장면이라고 한다. 진료실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지만 병원 문을 나서면 그저 평범한 이 동네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분당정자 지역의 쫓 피부주치의의 이야기다.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내온 20년, 깊어진 “정”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10분. 그 길목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는 곳도, 근무처도 분당정자 지역이다 보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초반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20년 동안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내온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고 말 사이가 아닌지라 허투루 대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동네 피부주치의가 되어 버렸다. (물론 영광이다) 개원 초반 학생으로 왔던 환자가 조금 뜸하더니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 면접 준비를 위해 방문한다. 어느 날은 결혼 소식을 전하고 출산 등 개개인의 대소사를 알게 된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의료진과 환자 간의 깊어진 ‘정’이 되어 오간다.

연구실 지킴이에서 피부 지킴이가 되다

대학시절,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하석준 원장. 피부의 면역체계를 비롯해 질환과의 연계성 등 경이로운 피부에 대한 연구가 즐거웠다. “지금은 피부 건강하면 미적인 부분이 강조되지만 초반엔 만성 피부 질환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이러한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데 집중했던 시간들입니다. 다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부 건강이 단지 질환적인 문제를 넘어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피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방향을 명확하게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때의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 성별, 연령대 관계없이 눈높이에 맞춰 진료한다.

방향성과 피부에 대한 진심이 통할 때 좋은 결과

흔히 피부가 좋다는 사람들은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는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20년간 마주하다 보니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피부는 당장 생

명에 지장은 없지만 개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한 지역에서 20년 동안 피부주치의로 자리하다 보니 한 분 한 분의 스킨 히스토리를 알아가면서 소명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변수가 많고, 개개인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경청한다. 치료의 방향성을 잡아가면서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피부에 대한 진심이 통할 때 놀랍게도 개선 속도는 빨라진다는 걸 20년 동안 경험하고 있다.

피부관리는 장기전, 웰에이징을 위한 투자

피부 과학의 발전으로 웬만하면 해결되는 세상이다. 멀리 안티에이징(early antiaging), 리버스 에이징(reverse aging), 슬로우 에이징(slow aging) 등 다양한 트렌드가 양산되고 있다. 피부주치의 하석준 원장의 생각은 어떨까. “지금 당장, 더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만 오늘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다 보니 60대 이후의 ‘오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나마 ‘가속 노화의 시대에 느리게 나이 드는 법’인 슬로우 에이징이 백세시대 피부관리를 대처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 지킴이로서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있어서는 안되지만 부작용의 경우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월을 어느 정도 묵힌 후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조급함보다는 노화를 유연하게 마주하는 것이 웰에이징의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피부관리는 장기전, 웰에이징을 위한다면 평소에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 피부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를 찾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것.

6mm 도 안되는 두께로 우리 신체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처럼 분당정자 차안박피부과 역시 언제라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을 나의 피부 지킴이임을 알겠다. (끝)

